

#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1]이 60점, [문항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논술 모의고사(인문계열)

**[논제]** 국제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관점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를 약육강식의 상태로 보아, 저마다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주의는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가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국가 및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치 질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토론하는 상황이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 < 다 음 > —

**주장 1:**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주장 2:**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 < 조 건 > —

1. 제시문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제시문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할 것.
3. 위에서 제기한 반론을, 조건 1에서 활용하지 않은 논거로 각각 재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제시문 (라)의 [자료 1]~[자료 4]를 활용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600자±60자, 40점)

— < 조 건 > —

1. [자료 1]~[자료 4] 중 [문항 1]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선택할 것.
2. 선택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 <제시문>

(가) 탈냉전 시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국제기구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것도 현실이다. 일부는 주요 국제기구가 소수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조직으로 편성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으로 현실주의가 있다. 이 관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멜로스의 대화”(the Melian Dialogue)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은 이렇다. 고대 그리스의 패권국이던 아테네는 약소국인 멜로스를 침략한다. 그러자 멜로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에서 자신들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테네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며 멜로스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고 정복한다. “멜로스의 대화”는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패권국의 힘의 논리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패권국의 힘은 약소국을 정복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가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패권국이 주도하는 정치질서가 잘 작동할 경우 국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패권국은 단순히 무력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기구와 규범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안정을 추구하기도 한다. 정치학자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존재했기에 국제정치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제기구 조직이 잘 유지되는 것도 특정국가에 원하는 국제규범을 대부분 국가들이 따르도록 하는 정치, 경제, 군사적 강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패권안정론이다. 그러나 패권안정론도 기존의 패권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거나 힘의 역전이 발생할 경우 국제질서에 불안정이 초래된다. 가령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정치에서의 국가 간 협력은 영원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제기구에서도 새로운 패권국이 기존의 국제기구가 정한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할만한 강제적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칸트적 관점에서 국제기구를 설명한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이성이나 합리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원칙에 의해 국가도 협력을 위한 사회적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실제로는 권력과 같은 문제보다 안락과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정치학자인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개개의 정부는 국민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없지만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은 기능적 차원에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기구 덕분에 국가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비협력으로 개별국가에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협력함으로써 얻는 장기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는 다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특정 국가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보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국제기구는 강대국이 힘을 과시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약소국에게도 정치활동의 무대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는 제도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증진되도록 도울 수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는 전 지구적 협력이 요청되는 만큼 국제기구를 통해 먼저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개별국가에게 강제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다.

고등학교과정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활용

(나) 소위 현실주의는 도덕주의나 이상주의와 달리 당위적 관점에서 세계를 접근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실현 가능한 처방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도덕주의자나 이상주의자들의 문제의식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 결코 도덕적 관념을 현실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현실주의자’로 간주되는 마키아벨리나 ‘이상주의자’ 혹은 ‘도덕주의자’로 간주되는 맹자 또한 당대의 현실을 인식하는 태도나 신랄함은 전혀 다르지 않다. 마키아벨리와 맹자는 분열된 여러 국가들이 극심한 경쟁과 전쟁을 벌이던 무질서 시대에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방법을 모색했던 사상가였다. 마키아벨리가 생존했던 이탈리아는 내전과 비슷한 혼란의 상황을 겪고 있었다. 밀라노와 베니스, 피렌체, 교황국, 나폴리왕국의 5개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 게다가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 스페인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의 침입도 있었다. 그래서 그의 『군주론』에는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 나타나 있다. 맹자 역시 주(周)나라 왕실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제후국들이 상호 무력경쟁과 정복 전쟁을 추구하여 백성들의 시신이 도랑이나 구렁에 뒹굴던 이른바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 즉 영토 확장 욕구 때문으로 보았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이익에 눈이 어두운데, 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 역시 그러한 본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한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의 통치권과 함께 시민들의 애국심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시민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강한 군대’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용병이 아니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단련된 애국심을 갖춘 시민을 중심으로 조직할 때 비로소 군대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성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군주나 귀족, 시민의 이해관계가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자유로운 정치체제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 아래 시민들은 자유롭게 능력을 계발하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되며, 동료 시민들과의 연대 속에 질서정연한 군대를 형성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맹자 역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군주가 영토에 대한 사욕을 품고, 신하들도 군주의 욕망을 만족시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전쟁을 부추김으로써 천하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질서한 현실에 대해 맹자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탐욕과 전쟁은 결국 자국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지지를 상실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보존마저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는 모든 사람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희구하고 백성의 생명과 삶을 우선하는 군주를 지지한다는 의식, 그리고 인간은 본래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탐욕은 이러한 본성에서 이탈한 비정상적 상태로 보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네 가지 자질이자 덕목은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이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적인 국제질서의 토대이기도 하다.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맹자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사대(事大)만이 아니라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기는 사소(事小)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작고 약한 국가가 크고 강한 국가를 섬기는 것은 지(智)에서 나오고, 크고 강한 국가가 작고 약한 국가를 섬기는 것은 인(仁)에서 나온다. 맹자가 인간의 타고난 자질의 부단한 수양과 확충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였다.

고등학교과정 『세계사』, 『윤리와 사상』 활용

(다)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정의하고 사람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라고 권유했다. 디오게네스를 따랐던 스토아학파는 그의 세계 시민 관념을 한층 발전시켜 우리 모두는 사실상 두 개의 공동체, 즉 우리가 출생한 지역 공동체와 인류보편적인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토아학파는 특히 인류보편적인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도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으로 이해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정의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모든 인류를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디오게네스가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라고 한 권유는 애국주의가 주는 위안이나 편안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생활방식을 정의와 선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그저 하나의 우연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디오게네스를 계승했던 스토아학파는 이 점을 인지하여, 국적이나 계급, 민족적 소속감이나 심지어 성별 차이가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 사이에 경계선을 세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건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인간성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 이성과 도덕적 능력을 존중하고 거기에 우선 충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항상 동등한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선택을 다루어야만 한다. 세계 시민이라는 관념은 칸트의 ‘목적의 왕국’이라는 관념의 원조이자 원천이 되었다. 칸트는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인간은 모두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인격처럼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이런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교류와 교역을 통한 평화의 정착을 추구하는 ‘영구평화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라는 이러한 권유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 견해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세계 시민주의가 소중하게 여길 법한 조금 더 명확한 원리와 정책들, 즉 공공 교육과 종교적 자유와 관용, 인종적 차별과 성적 차별의 금지 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우리는 흔히 복지국가라고 일컫는다. 이런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사회 정책들은 막대한 세계 시민주의적인 질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는 강력한 행정적·법적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 개발,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집행 주체는 국가이다. 즉, 세계 시민주의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국가적’은 ‘국제적’의 필수적인 일차적 구성 요소이다. 이처럼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하게 공유되는 복지 사회는 현실적으로는 국가적 단위로 존재하며, 그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귀속 의식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충성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지에 의존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일종의 공동 사업이고, 전체 인류보다는 같은 나라 사람들의 연대 책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세계 시민으로 존중 받기 위해서는 그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라는 현실적인 귀속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목격해 왔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을 지켜주는 건 세계 시민주의의 막대한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현실적 힘이다. 국가가 붕괴하면 국민은 난민이 된다.

고등학교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활용

(라) [자료 1]~[자료 4]는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다.

[자료 1]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 ‘A국’,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B국’, 그리고 밀을 주로 생산하는 ‘C국’은 자국의 주력 상품을 수출하며, 해당 상품들에 대해 <자료 1-1>과 같은 규모로 무역을 해왔다. 이 때 와인 한 박스, 자동차 한 대, 밀 1톤의 가격은 각각 2만 달러, 200만 달러, 20만 달러였다. 그러던 3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개국 간에 와인 한 박스, 자동차 한 대, 밀 1톤의 가격은 각각 1만 달러, 100만 달러, 10만 달러로 변하였다. 이후 3개국의 무역 규모는 <자료 1-2>와 같이 변하였다. 협정 체결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새롭게 출범한 A국 정부는 해당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단, 무역수지 이외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 1-1>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  
A, B, C국의 연간 무역 규모

	A국으로	B국으로	C국으로
A국에서	-	100만 박스	50만 박스
B국에서	1만대	-	2만대
C국에서	5만톤	20만톤	-

<자료 1-2>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A, B, C국의 연간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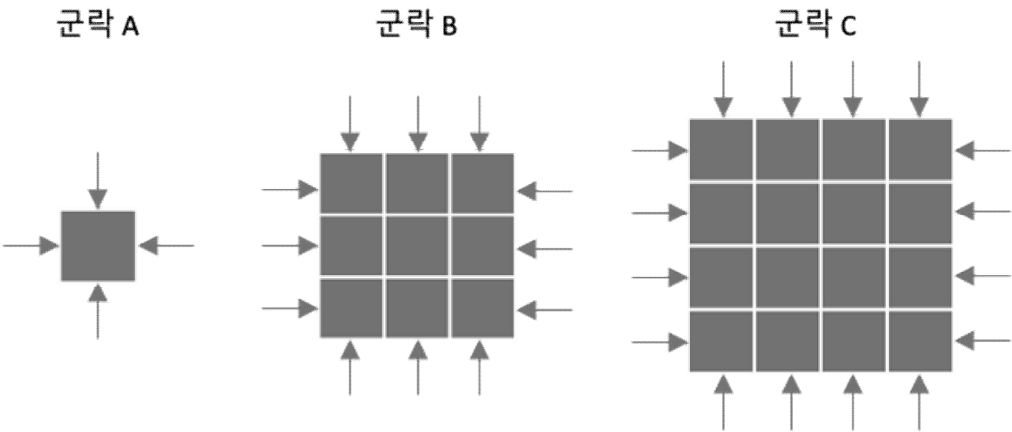
	A국으로	B국으로	C국으로
A국에서	-	300만 박스	200만 박스
B국에서	4만대	-	6만대
C국에서	30만톤	60만톤	-

\* 표 안의 숫자는 수출입 물량을 뜻함.

[자료 2]

군락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개체가 있다. 군락의 크기에 따라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이 <자료 2-1>과 같이 나타난다. 화살표 하나가 외부 위협 하나를, 작은 네모는 개별 개체를 의미한다.

<자료 2-1> 군락의 크기에 따른 외부 위협



**[자료 3]**

기업 A, B, C가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 기업의 연간 회의 회수,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 수, 창출 부가가치는 <자료 3-1>과 같다. 자료에 제시된 사항 외의 모든 조건은 세 기업이 동일하다.

<자료 3-1> 세 기업의 연간 회의 회수,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 수, 창출 부가가치

기업	2020년			2021년		
	연간 회의 회수(회)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 수(명/회)	창출 부가가치 (억 원/년)	연간 회의 회수(회)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 수(명/회)	창출 부가가치 (억 원/년)
A	30	40	10	40	60	7
B	40	60	7	30	40	10
C	30	40	10	30	40	10

**[자료 4]**

A국과 B국은 빵 또는 커피 중 한 가지 상품에 특화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 때 각국 노동자들이 1주일간 생산할 수 있는 상품별 최대 생산량은 <자료 4-1>과 같다. 빵 2개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은 커피 1개의 소비와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상품보다 두 가지 상품을 모두 소비할 때 효용이  $\alpha$ 만큼 더 증가한다. 이러한 소비자 효용을 기준으로 양국이 교역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교역은 빵 2개와 커피 1개 간의 교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자료 4-1> A국과 B국의 상품별 최대 생산량

	빵	커피
A국	6	3
B국	1	2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At the very top, there is a solid dark gray rectangular bar. Below this bar, the page is filled with evenly spaced horizontal lines,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thin and light gray, extending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illegible]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